

의 일부를 문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이경영, 이요원, 김미숙 등이 출현한 포퓰서 감독의 KBS 주말극 <푸른안개>(2001)를 들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나름 마니아 팬을 가지고 있었지요. 40대 중반으로 기업체 사장인 성재는 스포츠 실의 멘스스포츠 강사 신우의 당돌함과 순수함에 끌립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는 현재의 이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삶과 장인의 사명을 물려받은 뒤 장모의 무지와 차가식구들의 견제에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별했던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 빈 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신에는 성재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릴 적 엄마의 외도를 목격한 성재가 여전히 아픈 그에게 성재는 큰 울타리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이들의 만남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직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곤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힘을 재발명합니다. 성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한 후 어릴 적부터의 꿈이던 작은 시점을 차리고, 신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외국으로 떠납니다. 제복관람이나 어스름한 새벽처럼 분명치 않은 이 두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세심하게 짚어낸 작품이었지요.

앞서 언급한 <아내의 자취>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할 만합니다. 전업주부이면서 방송기자의 부인인 서래와 대치동 유명학원 원장의 남편이자 치과의사인 태오를 주인공으로 하지요. 결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오히려 신앙의 대상으로서 가진 서래와 태오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혹독한 대가를 가져다줍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들은 서로에게서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온갖 욕망, 즉 교육열, 부, 권력, 위선,



박진우 서울여대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모스와 보리스

윌리엄 스타이얼 저
우미경 역
시공주니어 출판

◎ 현문재(상권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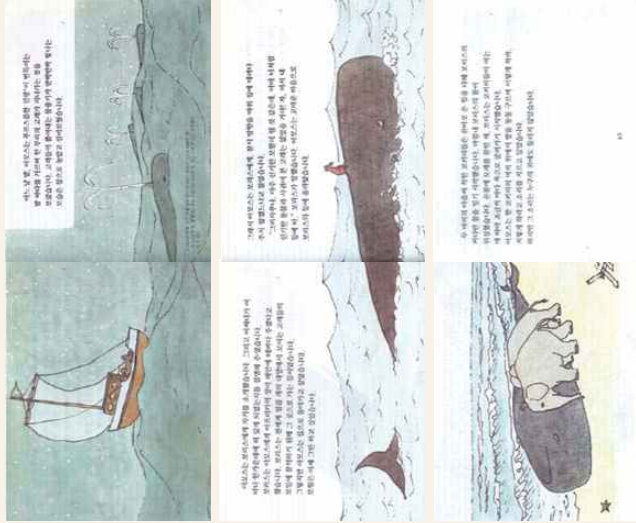
이번 달에는 윌리엄 스타이그(1907-2008)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래전부터 번역본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1980년부터 뉴욕에(New Yorker)에 만화를 연재하다가 61세에 그림책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20권이 넘는 그림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슈렉』,『멋진 뼈다귀』,『부릉부릉 스핑크』 등이 있으며 글이 많은 동화로는『아벨의 성』,『진짜 도둑』이 있습니다. 그는 칼 데쿱 메달, 뉴베리상, 안테르센 상 등 그림책과 아동문학 작가에게 주는 주요한 상은 거의 다 받았으며 소위 위대한 이 야기꾼(great storyteller)이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Amos and Boris』(1971)는 다산기획 출판사가 1994년에 제목을 『생쥐와 고래』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으며, 그 후 1996년에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아모스와 보리스』로 원제 그대로 번역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 텍스트는 다산기획의 번역본생쥐와 고래에서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모스'라는 이름의 생쥐와 '보리스'라는 이름의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 5월호에 소개했던 '아름다운 책과 비교해볼 때 글 언어의 비중이 그림 언어보다 높은 작품이어서 그림을 보지 않고 글만 읽어볼 수 있는 정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림을 함께 보아야 그 두 캐릭터를 더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잠깐 실험을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책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누가 글만 읽어주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음에는 자신이 그림과 함께 글을 읽는 식으로요).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분은 바다를 사랑한 아모스가 바다로 모험을 떠났다가 물에 빠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
2. 두 번째 부분은 아모스가 보리스를 만나 친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와 헤어질 때까지.
3. 세 번째 부분은 보리스가 태풍에 밀려 버섯기로 떠밀려오다가 아모스의 기지로 실어나 두 친구가 다시 작별하는 결말까지입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자신의 존재를 비교하면서 그 신비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아모스는 생쥐호의 갑판에 누워 초롱거리는 별이 가득 담긴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둘러싼 넓고 넓은 우주에 비해 자신은 한낱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아모스는 구원자, 보리스를 만나는데 아모스는 이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잊지 않습니다. 보리스에게 자신은 물고기가 아니라 젖먹이 동물인 생쥐이며 심지어 “가장 진화된 동물이지. 나는 물에서 살아.”라고 으스스합니다. 그렇지만 보리스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응수하지요. “이런 맘소새! 나도 젖먹이 동물이야. 하지만 나는 바다에서 살아. 내 이름은 보리스야.” 보리스가 자신은 전 세계 일곱 개의 대양에서 모이는 고래들의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자 아모스는 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리스는 “그러자구나. 아주 신기한 모험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너처럼 신기한 동물과 사귀어 본 고래는 없었을 거야! 자, 어서 내 등 에 타.” 라며 쾌히 승낙합니다.

이제부터 아모스의 바다 모험 대신, 보리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리스의 모험은 아모스의 모험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바다로 모험을 나갔지만, 보리스는 아모스와 친구되기에 끌린 것입니다. 같은 포유류인데도 서식처도, 크기와 생김새도 아주 다른 아모스에게 호감을 느낀 보리스는 그와 기꺼이 시간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 위에 올라가 기본 좋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 모종의 규칙(보리스가 짐수할 때는 아모스에게 신호를 보낸다)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둘은

같이 이야기하고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면서 아주 깊은 친구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아모스의 섬세함, 우아함, 부드러운 손길, 조용한 목소리, 보석처럼 빛나는 눈빛에 감탄했습니다. 아모스는 보리스의 거대함, 당당함, 엄청난 힘, 굳은 의지, 풍부한 목소리, 그리고 친절함에 탄복했습니다. 보리스와 아모스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마치고 아모스와 헤어질 때 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 너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바닷에서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결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아모스는 자신도 보리스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보리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두 친구 모두 알 수 없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세월이 흘러 둘이 어른이 된 어느 날, 이번에는 보리스에게 닥친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떠밀려온 보리스에게 이번에는 아모스가 구원자가 됩니다. 아모스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친절한 꼬끼리 친구들이 보리스를 코로 밀어 물속으로 날려줍니다. 이때 아모스의 모습은 “한 꼬끼리의 머리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 하지만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꼬끼리의 머리에 올라가 힘껏 소리 지르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는 독자들은 누구나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바다로 돌아간 보리스는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심리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리스와 아모스는 두 번째 이별을 맞게 됩니다. 작별인사를 하는 큰 고래 보리스의 뺨 위에도, 작은 생쥐 아모스의 뺨 위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결코 잊지 못하리라는 것도요.”

처음이 작품을 접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우정’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작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모험’도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아모스의 모험 (바다 여행)과 보리스의 모험 (아모스와의 친구 되기) 덕분에 시작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모험을 통해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서로의 모습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는 것이 많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스토 신생님’이 등장하는 《키퍼의사 드스토 신생님》, 《아프리카로 간 드스토 신생님》 두 권을 제외하면 그의 작품에는 매년 다 른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한결같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늦게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와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100세 생일을 맞던 앞날 2008년, 그는 어렸을 적에 아기를 담은 ‘모든 사람이 모자를 썼을 때(When every-body wore a hat)’를 출간하였는데 이것이 어린이 독자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습니다.